

사고인가? 살인인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인가? 대학살인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이렇게 답한다.

“국가에 의한 대학살이라고!”

정혜숙 씨 (단원고 고 박성호 군 어머니)

정혜숙 씨는 “이것은 대학살”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사태가 단지 ‘무능함’ 때문이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역시 가만히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무능을 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겪었고, 견져낼 수 있었던 아이들을 시간을 지연하며 견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4. 6. 9.)

이호진 씨 (단원고 고 이승현 군 아버지)

국가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80년 5월 광주가 매우 닮은 것 같다. ...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 해군, 공군, 공무원들이 사고 직후 3일 동안 구조조차 하지 않았다. 구조 의지가 있었다면 나룻배 한 척만 있었어도 아이들 수십 명을 분명히 살릴 수 있었다. 분명한 학살이다. (정대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광주 5.18은 닮아”, 《한겨레》, 2014.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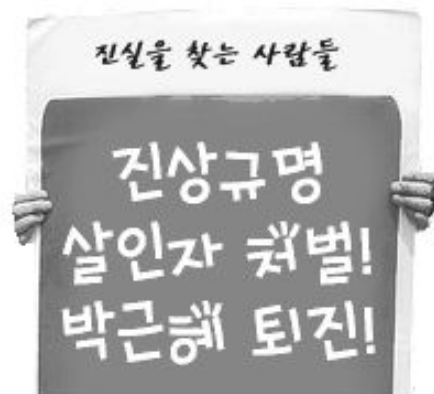
유경근 씨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 왜 죽었는지 알려 주고 싶다고요. 그거 하나면 돼요. (《SBS 뉴스》, 2014. 7. 2.)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정부는 아이들을 왜 살리지 않고 죽였는가?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조작하고 있는가?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정확한가?
진실의 기억인가? 저들에 의해 주입된 기억인가?
우리는 오로지 세월호의 진실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기억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조작하고 있는가?

의문 사고 당시 통화 기록은 왜 지워졌는가?

세월호 탑승객들과 통화를 했던 사람들의 사고 당시 휴대폰 통화 기록과 통신사 통화 기록이 지워졌음이 밝혀지고 있다.

누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는가? 그리고 개인의 휴대전화와 통신사의 서버에 접근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의문 목포 해경 간부 아파트의 CCTV는 왜 삭제되었는가?

이준석 선장은 왜 목포 해경 박 모 경사의 집에 머물렀는가?

그리고 그 시간 그곳에 누가 다녀갔기에, 그 아파트의 CCTV 기록은 2시간가량 삭제되어 있는가?

누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그 기록을 삭제했는가?

의문 진도 VTS 내부의 CCTV 기록은 왜 삭제했는가?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진도 VTS 내부에는 CCTV가 없다고 했다. 얼마 뒤 CCTV가 벽을 향해 있었다고 했다. 그 CCTV는 한 달 전부터 고장이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그 CCTV 영상이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밝혀졌다. 저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그동안 거짓말을 해 왔고, CCTV 기록을 왜 삭제했는가?

의문 진도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물체는 무엇인가?

언론들에서는 그 물체를 세월호가 급격하게 변침하면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의 크기 그리고 물체가 거의 동시에 화면에서 사라지는 점 등을 들어,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라고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급격한 변침 직후, 레이더에 잡힌 그 물체는 과연 무엇인가?

의문 세월호는 왜 급격하게 변침했는가?

3등 항해사 박 모 씨는 재판에서 “반대편에서 배한 척이 올라왔다”, “충돌을 피하려 급전회”했다는 진술을 했다. 반대편에서 나타난 그 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재판 전까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왜 전혀 없었던 것인가?

의문 정확한 사고 시각은 언제인가?

전날 밤 배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울었다”는 생존자의 증언, 오전 7시 45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의 증언, 사고 시각이 8시경으로 기록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상황실의 “진도해상여객선 침몰사고 상황보고”와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해양사고보고”. 정부가 사고 시각으로 발표한 8시 49분 이전에, 세월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확한 사고 시각은 언제인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수많은 의문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무능한 정부, 탐욕의 자본, 비정규직, 규제 완화, 무리한 증축, 과적, 평형수 부족 등을
이 학살의 원인으로 단정 지어 주장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 아닌가?

“세월호 학살 주범 박근혜를 몰아내자!”